

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제약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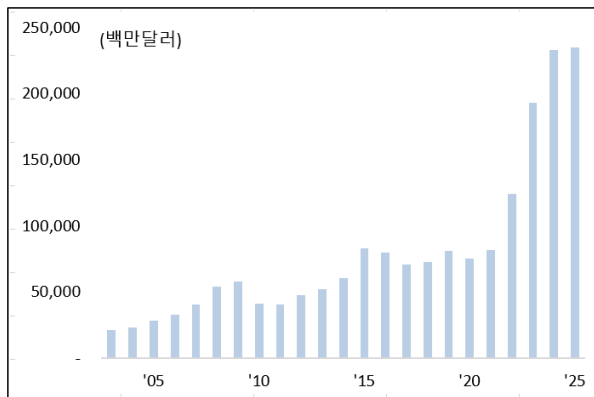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양 서 영 (syeeong@kdb.co.kr)

- ◆ 미국은 '08년 이후 제조업 기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건설지출 대비 고용 확대 효과는 미약
- ◆ 트럼프 정부도 관세를 통한 제조업 재건을 유도하고 있으나,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, 생산성 하락은 산업 경쟁력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

□ 미국은 '08년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부터 제조업 기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 시행

- 가장 최근인 바이든 정부는 IRA(인플레이션 감축법), CHIPS Act(반도체 지원법) 등에서 북미산 배터리 사용, 미국 내 반도체 설비 건설에 세금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
- 이에 따라 '22년 이후 미국 내 제조업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, 정책 분야인 컴퓨터·전자 부문에 대한 건설지출은 '22~'23년 사이 4배 이상 증가
- 동기간 제조업 고용도 증가하였으나,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등 정책의 고용유발효과는 제한

제조업 건설지출 추이



자료 : Fred

제조업 고용 수 및 비중 추이



주 : 비중은 제조업 고용/전체 고용

자료 : Fred

□ 트럼프 정부도 자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한 제조업 재건 및 일자리 창출 강조

-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'미국 우선 무역정책(America First trade policy) 대통령 각서'('25.1)를 발표하고, 무역상대국에 공격적인 관세 부과
- '25.4월까지 전 세계에 보편관세 10%, 대중관세 145% 추가 등 고율 관세 부과

-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은 산업 리쇼어링 등을 바탕으로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이를 통한 중산층 강화,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*

* 2025 Trade Policy Agenda and 2024 Annual Report(USTR(미국 무역대표부), '25.2)

□ 하지만 구조적으로 둔화한 미국 제조업을 관세만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우며,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둔화가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

- 저임금 국가로의 공장 이전과 자동화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 및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축소*

* GDP 대비 제조업 비중(%): 27.0('50) → 20.0('80) → 15.0('00) → 12.0('10) → 10.0('24)

전체 고용 대비 제조업 비중(%): 30.9('50) → 21.0('80) → 13.0('00) → 8.8('10) → 8.1('24)

- 멕시코 등 해외생산 거점 대비 5~10배에 달하는 인건비, 인력 미스매치 등에 따른 숙련공 확보 어려움* 등으로 미 제조업체의 자국 생산 매력도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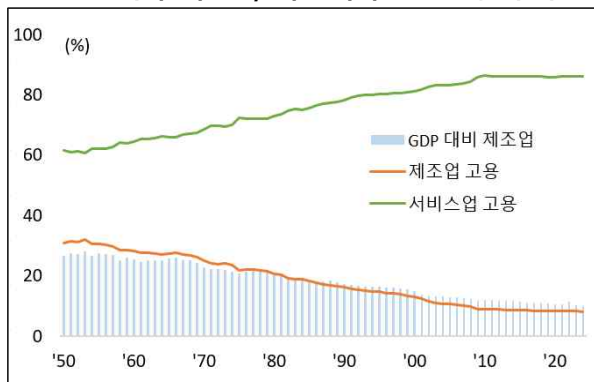
* '30년까지 기술훈련이 필요한 제조업 내 주요 숙련 일자리 2.1백만개 공석 전망(Deloitte('21))

- 최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('24년 실업률 4.0%)에서 낮은 제조업 고용 비중은 산업 구조 변화와 제조업에 대한 구직자 선호도 저하를 의미*

*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이 제조업에서 일하면 미국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80%나, 본인이 제조업에서 일할 시 삶이 나아질지에 대해 긍정은 30%에 불과(Financial Times('25.4)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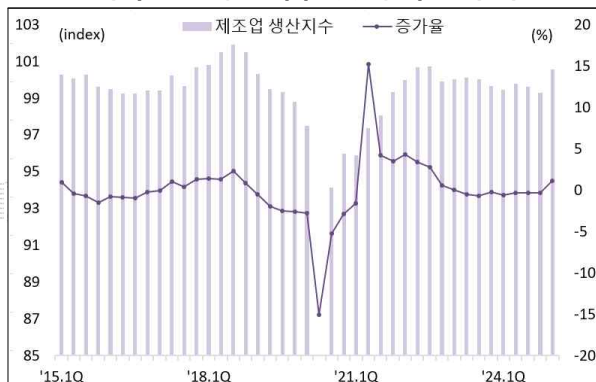
- 또한 무역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은 경기둔화, 생산성 하락 등을 야기할 가능성
 - 1기 미중 무역분쟁 당시('19)에도 교역 둔화 등으로 산업 생산이 감소하였고, 제조업 건설투자도 '18-'19년 평균 전년비 7% 증가에 그침('12-'17년 평균 11%)
 - 공급망 불안정은 해외공급자와 협력 중인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비용 상승, 생산성 하락 등을 야기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첨단제조업, 서비스업 등 산업 경쟁력 전반을 악화시킬 우려 상존

GDP 대비 제조업, 제조·서비스업 고용 추이



주 : 고용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
자료 : 미국 경제분석국(BEA)

미국 산업생산지수 및 증가율 추이



주 :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
자료 : Fred